**J. P. Morgan IBD**

* 1. **Phone Interview (12/4 Wed.): 소요시간 15분 / in English**
     + 안형태 차장님과 인터뷰 진행하였고, BCG Final Interview 직전에 연락이 와서 촉박하게 진행함.
     +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
     + What did you do during your PE internship?
     + What do you think is important for PE’s fund-raising?
     + Explain about your analysis of potential investments
       - 회사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industry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함
     + If your PE has to convince the LPs about the investment-attractiveness of Korea, which macro-economic factors should be employed?
     + Do you have modeling experiences?
     + 궁금한 것만 조목조목 질문하시고 끊으셨으며, 마지막에 Feedback이 영어를 썩 fluent하게 하시지는 않네요….. 였습니다.
  2. **Interview (12/5 Thu.): 소요시간 7시간 / 60% 영어 40% 한국어**
     + 총 7분이 번갈아가면서 들어오셨고, Analyst 1분 / Associate 3분 / ED 1분 / MD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. 10시에 오피스에 가서 인터뷰 2개 보고, 영한/한영 번역(각각 반페이지)하고, 점심시간 1시간 줬으며, 1시부터 5시 15분까지 5분 면접 봤습니다. 중간에 대기시간도 길면 30분 가량 있었으며, 30분 ~ 1시간씩 면접 진행했습니다.
     + **1. Analyst Interview**
       - 자기소개 해보세요 (한국어)
       - What is the corporate financial overview you’ve done in PE? (여기서부터 영어)
       - Do you think it contains the appropriate information for a company profile? If not, why?
       - How do you compute deal multiples and premium payments?
       - Tell me all the investment vehicles you’re aware of
       - Why not EV/Earnings, Price/EBITDA?
       - Explain the definition of Firm value and Equity value and its difference
     + **2. Associate Interview (Mr. Joon-Pyo Park)**
       - 자기소개 해보세요 (영어)
         * 이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심
       - 대부분 PE관련한 질문은 위와 중복됨
       - DCF에서 TV 어떻게 구하나?
       - JP Morgan에서 한 Deal 아는대로 얘기해봐라.
       - Groupon과 TMON의 Deal value가 어느 정도일 것 같나?
       - A와 B라는 회사가 있고,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네 D/E Ratio가 다르다. 이 중 Ke가 더 높을 것 같은 회사가 어디인가 and why?
         * i) CAPM과 ii)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된다고 힌트 주심
       - 가장 후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?
       - 본인이 outstanding하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는가?
       - 질문 있나?
         * 왜 banking하시냐고 물어봤더니 ‘Accidental Investment Banker’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고, 본인은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고등학교를 프랑스,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고 공부를 잘하다보니 사람들 기대치에 맞춰서 직업을 정했고 그게 banking이 된 것 뿐. 책에서는 IBD를 아무 효용이 없는 일처럼 표현하지만 본인은 Agent로서 Principal의 needs를 충족시켜줬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심.
       - 나가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오시더니 술 좋아하나?
       - 술 주로 어디서 마시나?
       - 술 마시고 다음날 잘 깨나?
     + **3. Translation (for 30Min.)**
       - 한 🡪 영
         * 미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폭 감소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및 전문가들이 재정 적자폭 감소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 에 대한 ‘기사’였습니다.
       - 영 🡪 한
         * 최근 공기 중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 남경에서 포럼이 열렸고, 한/중/일 환경연구소가 참여하여 협력연구를 하기로 했다. 에 대한 ‘기사’였습니다. 신문 보면서 영어공부하면 도움 많이될 것 같습니다.
     + **4. Associate Interview**
       - 자기소개 해보세요 (한국어)
       - 중국에는 왜 갔으며 왜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받고 간거냐(쭉 영어)
       - 독일어 왜 배웠냐?
       - PE에서 했던 일 3가지 얘기해봐라
       - Analyst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나?
       - 향후 인턴쉽을 한다면 지난 경험에 비추어 무엇을 보완하고싶은가?
       - 1,000억짜리 공장을 산다면 3개의 재무제표에 어떠한 계정이 어떻게 변하는가?
         * 얘기하니까 칠판에 직접 I/S B/S C/F 그리면서 이거 맞냐? 라고 confirming question을 상당히 aggressive하게 해서 잠시 당황했는데, 중간에 면접 방식이 그렇구나 라고 파악해서 생각나는대로 확실하게 대답했더니 좋아하심.
       - D&A는 I/S의 어느 계정과 연관되는가?
       - Why investment banking?
     + **5. Associate Interview (Mr. Hyung-Tae Michael Ahn)**
       - 이 분과 전화 인터뷰 진행했었음.
       - 주로 전화 인터뷰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face-to-face로 다시 듣고 싶어서 면접에 들어왔다고 하심. 질문은 All in English
       - 엑셀 자주 쓰는 단축키 3개만 얘기해봐라
       - J.P.Morgan의 최근 Deal에 대하여 알고 있는대로 얘기해봐라.
       - M&A를 왜 하는 것 같나?
       - 친구들이랑 뭐하고 노나?
     + **6. Executive Director (Mr. Jae-Kyun Seo)**
       - 자기소개(한국어)
       - Why Investment Banking?
       - 왜 사냐 (여기서부터 영어)
       - FCFF/FCFE 설명해봐라
       - PER, PBR, PSR, EV/EBITDA 설명해봐라
       - DCF 설명해봐라
       - 동원F&B DCF 할 때 WACC 얼마 썼나?
       - Beta는?
       - 적절했다고 생각하나?
       - 블룸버그 다룰 줄 아나?
       - 군대에서는 뭘 배운 것 같나?
       - VC/PE Working Hours는?
     + **7. Managing Director (Mr. Hee-Jae Lee)**
       - 회계사 출신이시고, 회계 firm에서 M&A Advisory 하다가 이 쪽으로 넘어오셨다고 함.
       - 자기소개(all in English)
       - PER를 왜 쓰는 것 같나?
       - EV/EBITDA는 왜 쓰는 것 같나?
       - PER와 EV/EBITDA중 업계에서 먼저 쓴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있냐?
       - 무슨 책 좋아하나?
       - 왜 일본소설이 재미있나? 변태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?
       - Inventory가 100인데 10을 write-off하면 I/S B/S C/F가 어떻게 변하나?
       - NOPLAT에서 Adjusted Tax는 무슨 개념인가?
     + **8. Managing Director**
       - 자기소개 (한국어)
       - Why Investment Banking? (English)
       - VC/PE/평소 Working Hour 어떻게 되나? (이후 쭉 한국어)
       - 어느 정도 자는 것이 본인에게 적당하고 생각하나?
       - J.P.Morgan에 와보니 느낌이 어떤가?
       - 앞의 인터뷰를 잘본 것 같나?
       - 집 근처에 신문/책을 파는 조그마한 책방이 있다. 연매출이 1억이다. 질문을 3개 할 수 있다. 3개의 질문을 하고 이 책방을 얼마에 살 것인 지 얘기해보아라.
         * 저는 1) 향후 매출의 성장성 2) Income 별 Margin에 대해서 질문하고 조달하는 자본의 금리를 assume 하고 대답했습니다.
       -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업체를 인수할 때 평균적으로 몇 배수에 인수할 것 같은가?
       - 끝.

J.P.Morgan에서 모든 면접관분들께 Why do you work in the investment banking industry?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전부 적지는 않았습니다. 사실 원하던 대답을 해주신 분은 한 분도 안계신데 그게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아무튼 궁금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요.

제가 대답했던 내용을 적지 않은 이유는 Technical & Prior Working Experience 관련 파트는 일부러 적지 않았고, 개인적인 내용들은 부끄러워서 안 적었습니다. 이 역시 혹 궁금하시다면 술자리에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* 1. **Final Interview (12/17 Tue): 소요시간 45min, 한:영 = 5:5**
     + **w/ CEO of J.P.Morgan (Mr. Steve Sukjung Lim)**
       - 우선 16일 월요일 밤 11시 즈음에 박일우 부장님께 전화가 와서 영어로 자기소개 및 J.P.Morgan (Globally & Domestically) 아는 만큼 설명해보라고 하셨는데 J.P.Morgan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준비 많이 하고 오라고 하셔서 준비를 시험기간 쪼개서 하고 갔고,
       - 승민이 형이 임석정 대표님이 ‘95년부터 J.P.Morgan CEO를 역임하고 계신 국내 IB 1세대임을 알려주셔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. 특히 회사 대표님들과 인터뷰가 있을 때에는 당사의 장점 및 역사, 대표님 약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
         * 인턴 했던 Joshua Tree Asia Investment의 Peter Whang 대표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1. JTA에서 왜 Full-time offer를 받지 못한 것인가? 2. JTA는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황인가? 3. Partner들은 누구인가? 4. JTA에서 했던 일들에 대하여 얘기해보라. 이러한 질문들을 하셨고 첫 10분 이와 관하여 면접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10분정도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.
         * Why KAIST Business Major?
         * Why did you choose ‘German major’ in high school?
         * Why did you choose Tsinghua?

어떠한 선택을 할 때 ‘자체적인 기준’을 가지고 선택한 것인 지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으로 해석하였습니다.

* + - * + 루트 200 소수점 1의 자리까지 3초 내로 답해봐라
        + Tell me everything you know about J.P.Morgan
        + Why did you apply for J.P.Morgan other than Goldman Sachs or Morgan Stanley?
        + 한국 J.P.Morgan IB의 최대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?
        + 루트 300 소수점 1의 자리까지 3초 내로 답해봐라
        + Any questions?

사전 조사하면서 임석정 대표님 2011 인터뷰 기사 중 ‘올해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이루고 싶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’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가서 목표를 세우셨는 지, 알려줄 수 있는 지 여쭤보았습니다.

한국의 제반 금융 시스템이 아직 홍콩, 싱가폴, 일본 등에 비하여도 현저히 뒤쳐져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업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.

* + - * + 이 면접을 마지막으로 20일 금요일에 최종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으나, M&A 및 ECM뿐 아니라 DCM까지 아우르는 IBD 업무에 전부 투입될 것 같다면서 DCM분들과 합격여부와는 무관한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
  1. **Additional Interview (12/20 Tue): 소요시간 20min, Phone Interview, 한:영 = 7:3**
     + **w/ VP & ED of DCM Dept.** 
       - * 자기소개 해보세요.
         * 왜 DCM/ECM보다 M&A Advisory 업무를 먼저 경험해보고 싶나요?
         * 신문은 자주 읽나요?
         * Tapering 기사 봤는 지, 봤으면 내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.
         * QE와 Tapering을 각각 시행한 후 예상되는 이자율 변동 추이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.
         * 체력은 좋나요?
         * 인턴 3명이서 일하다보면 실력이 비교될 것이고, 그에 따라 맡겨지는 업무량이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?